경쟁 지친 청년 위한 명상캠프 열린다

문경명상마을, 10월 28~30일 청년명상 힐링캠프

만18~39세 청년 대상 진행
각산 · 마가 · 월호 스님 등
한국 대표 명상 멘토 강연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을 대표하는 참선명상센터로 거듭난 간화선 국제선센터 문경세계명상마을(회주 의정)이 학업과 취업난에 지친 청년층을 위한 명상 축제를 마련했다. 국민명상센터를 지향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고자 앞장서는 문경세계명상마을이 이번에는 청년들의 삶에 주목했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10월 28~30일 3일간 '청년이여 비상하라, 청년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만 18~39세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각산 · 마가 스님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비베카 킴 인도 비베카난다요가대 한국지부 대표, 채희걸 세계선무도총연맹 이사가 직접 강의하는 요가 · 선무도 · 밤하늘별보기 등 다양한 강연과 명상체험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청년 미래의 꿈과 창업 그리고 청년 직장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학업에 따른 육체적 심리 압박을 명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원초적 수행을 갖춘 불교명상의 참선은 일반 명상과는 결이 다르게 내면의 숨겨진 나를 만나 지혜의 빛을 비추게 한다.

유발 하라리, 빌게이츠, 아놀드 슈워제네거, 스티브 잡스 등 세계 유수 리더들은 이미 불교명상에 젖어있다. 청년불자들에게도 이번 청년명상힐링캠프를 통해 붓다의 고차원적인 철학적 진리와 불교만이 갖는 고품격 명상 수행을 체험해 청년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들에게 바쁜 생활 속에서 참선 명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해 어떻게 새로운 삶을 만들 것인가를 스스로 탐구하게 하고자 한다. 참가자는 100명으로 마감되었고, 현재는 대기자 신청만 받는다.

참석자들 신청 동기 면면을 들여다 보면, "전통 간화선 수행의 참 진리를 알고 싶다" "정확한 초기불교 명상을 알고 싶다" "내면을 탐색하고 싶다" "내면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다" "명상으로 잡생각을 없애고 싶다" "명상을 시작하고 많이 달라졌기에 더 배우고 싶다" "참선으로 마음의 정화를 하고 싶다"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해서다"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다" 등등이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참불선원 선원장)은 "한국불교의 미래는 청년 불자에게 달려 있다. 오늘날 명상이 지식층서 대세로 굳혀지며 외국에선 변호사 · 구글 엔지니어 등 20~30대의 엘리트들이 명상을 접하고 있다"며 "세계명상마을에서 프랑스 떼제공동체 낭만도 접하면서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수행의 원초적 명상을 체험하며 청년들이 당당한 내면의 불성을 찾고, 봉암사 희양산의 밤하늘 별을 마음껏 감상하며 힐링과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2박3일 동안 단체명상을 체험할 수 있고, 차명상, 숲속 걷기명상 체험과 선무도, 요가 체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상마스터 강연 및 선승과의 대화를 통해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28일 오후 1시 세계명상마을에 집결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마가 스님 강연과 비베카 킴 대표의 요가 수업으로 본 행사가 시작된다. 다음날인 29일은 종소리 명상 · 채희걸 이사의 선무도 강연 · 숲속 걷기명상 · 월호 스님 강연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30일에는 각자 방사 청소 후 해단식이 열린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참선, 밤 9~12시 밤하늘 보기 명상도 이뤄진다. 캠프 시작날인 28일 점촌터미널서 세계명상마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은 개인 이불 · 손전등 · 세면도구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프로그램으로서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1577-4327

"일붕 서경보 스님 가르침 계승할 터"

일붕문도중앙회, 영평사서 문도의 날 기념법회 봉행 문도회장 정림 스님 취임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는 10월 11일 안성 영평사에서 '제51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법회 및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국내외 각지에서 일붕 서경보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있는 1만여 일붕문도가 51년째 기념법석을 열고 제25대 일붕문도중앙회장 정림 스님의 연임을 계기로 그 가르침을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서원을 모았다.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는 10월 11일 안성 영평사에서 '제51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법회 및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일붕문도가 한자리에 모여 스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평화 사상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한 법석으로 진행됐다. 일붕문도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열반 이후에도 매년 전국 일붕문도의 날을 지속해 왔다.

51회를 맞은 일붕문도의 날 기념법회에서는 제25대 중앙회장으로 영평사 주지 정림 스님이 연임됐다. 이날 25대 회장에 취임한 정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의 대스승인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다"며 "세연을 다한지 27년이 지나도 많은 제자분들이 그 가르침을 추앙하면서 사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일붕 서경보 스님은 특히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850여개의 기념비를 건립했으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해 초대 세계법왕으로 추대된 바 있다.

25대 임원진에는 수석고문에 의현 대종사, 문장에 혜운 스님, 총재 동봉 스님, 명예회장에 천강 스님 등이 추대됐다.

문장 혜운 스님(일붕사 회주)은 인사말에서 "일붕 서경보 존자의 생존시부터 함께 한국불교를 이끌어오신 서의현 대종사께서 일붕문도중앙회 수석고문으로 추대되심을 1만여 문도의 환영인사를 대신 전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장 · 이사장 월인 대종사도 격려사에서 "일붕 스님은 일찍이 독특한 선수행과 포교활동으로 한국불교 큰 스승으로 존경받았다"며 "이 자리가 큰스님께서 염원하신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국태민안 국운융창을 위한 절실한 기도와 원력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총재 동봉 스님과 명예회장 천강 스님도 일붕문도의 역할을 재차 당부했으며, 종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산 대종사와 일붕문도중앙회 상임고문 법륜 스님, 수석부회장 광명심(최혜숙)원장,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각계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편 일붕문도는 이날 자천강 명예회장에 일붕평화대상을, 최혜숙 수석부회장에 봉사상 수여했다.

안성=송지희 기자

전국 청년 불자들 한자리에

대불청, 29~30일 금산사서 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김제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창립 102주년 기념 제4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청년불자! 미륵불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서는 29일 식전행사로 금산사 사찰문화답사와 체험활동이 진행되며, 본대회서는 성악공연과 스님 초청법문, 시상식, 전국청년불자결의 등이 이어진다. 또 본대회 후 대동놀이 행사로 국악공연 및 난타공연, 김용진 가수의 음성공양이 이어진다.

10월 30일에는 회향식과 함께 내장사, 선운사, 금당사, 탑사 등 각 지구별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대불청 측은 "이번 대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회원들이 서로 법우애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화합의 자리"라며 "태공 월주 스님의 정신이 깃든 김제 금산사에서 불청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와 나눔, 화합, 실천의 미래 청년포교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공모

11월 6일까지 본부로 접수
대상 · 홍보 · 생명 · 나눔 등
11월 19일 건국대서 시상식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오는 11월 6일까지 '제3회 생명나눔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생명나눔대상은 올 한해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생명나눔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인행사 기여도, 홍보 횟수, 전문성 및 성실성, 법인에 대한 관심도, 장기 및 조혈모세포 등록 활성화, 기부 등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생명나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심의해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할 계획이다.

추천 부문은 대상과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등 4개 부문이다. 대상은 생명나눔 전 부문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홍보상은 언론과 출판, 문화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생명상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나눔상은 봉사 · 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www.lis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 홍보상 · 생명상 · 나눔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은 11월 19일 건국대서 예정된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청주 평화사,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건학위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기금에 전달

청주 평화사(주지 선현)가 동국대에 1000만 원을 쾌척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0월 12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화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건학위원회 위원장 돈관 스님, 박기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박광현 교무학생처장, 평화사 장학생 10명이 함께 했다. 평화사 주지 선현 스님은 사찰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이 대신 참석했다.

돈관 스님은 "오늘 장학생들은 지역 인재로서 장학생이 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평화사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왼쪽 의자 착석자부터)윤성이 동국대 총장,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평화사 장학생 등 참석자들이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회주 명성 율주 일진
학장 진광 주지 운산
신도회장 박순곤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